

# 東南亞서 월동하는 세계적 희귀조

##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李正雨 조류연구가

### 2차 번식사실도 발견

#### 번식지 신도 답사

지난 8월 초순 조류연구가 李正雨씨(본회회원·연재물 집필)는 지구상에 사라져 가는 희귀조류의 하나인 노랑부리백로의 유일한 국내 번식지인 신도(경기도 옹진군 북도면)를 찾아 두번째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노랑부리백로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자료목록 부호 제22호로 등록된 조류이고 천연기념물 제360호이기도 한 희귀조류이다.

지구상에는 유일하게 북한의 황해 해상에 있는 무인도인 납도와 소감도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최근에 국내에도 서해안의 신도에 이 새가 번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신도는 서해상의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무인도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매년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번식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200~300쌍이 번식하고 있다.

신도는 3,000평쯤 되는 바위섬으로 주로 명아주와 일부 잡초가 온 섬을 덮고 있는데 노랑부리백로는 1m내외의 명아주 군락속의 땅위에다 마른 풀줄기를 깔고 둥지를 튼 다음 한 배에 보통 2-3개의 알을 낳아 품는다. 포란은 주로 암컷이 하고 포란기간은 40일쯤 된다.

동남아에서 월동을 하고 5월에 이곳으로 도래하여 둥지를 트는 노랑부리백로는 여름철새로 대개 6월 초순에 산란하고 어린 새는 육추기간이 30일-40일쯤 된다.

식성은 물고기가 85%쯤 되고 새우나 게도 약간 먹

는다.

신도의 경우 이미 7월에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은 명아주 군락의 풀숲으로 숨어다니며 어미새를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떤 개체는 불완전한 날음으로 섬을 배회하기도 하였다.

또 무정난이나 알까기에 실패한 개체는 보충산란하여 2차 번식을 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강화도, 불음도, 인천해안 한강하류에서 간혹 발견되는 노랑부리백로는 이곳에서 건너와 남하를 기다리는 개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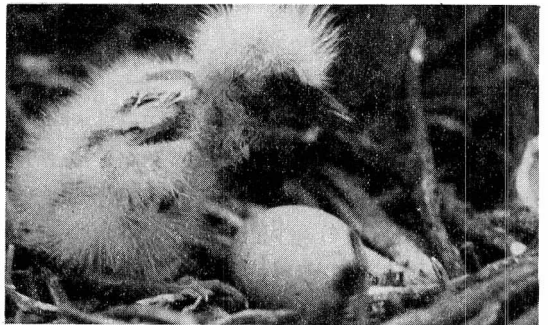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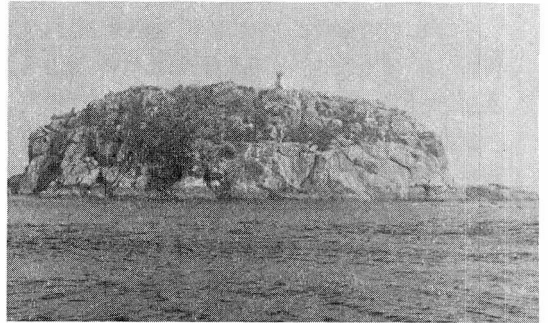


사진 : 1990. 8. 2 촬영(李正雨)

무인등대가 있는 신도 전경(上)과

부화 1일된 어린 새와 알(下)